

중요보도

보도매체명 : 강원도민일보

게재 일자 : 2008년 1월 16일(수)

게재면 : 16면

매지호 조수보호구역 해제 검토

원주시, 내달 간담회 개최... 생태공원 조성 추진

원주시가 지역내 첫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흥업면 매지호 조수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.

원주시는 자연생태계 보존이 탁월하고 교통이 편리한 흥업면 연세대 원주 캠퍼스 옆 매지호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시설 설치를 위한 매지호 조수보호구역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.

이를 위해 시는 늦어도 내달중 환경 단체 및 연세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매지호 조수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.

시는 간담회를 통해 매지호 조수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생태공원 조성과 운영시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

다는 구상이다.

조수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시는 한국 농촌공사와 함께 사업비 40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09년까지 매지호를 조류 등 주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를 비롯해 산책로, 연꽃단지, 나무다리, 정자 등을 갖춘 원주 첫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.

또 인근 농지에 대한 농업 용수 공급

에 차질을
를 위한
정이다.
환경단
류 서식
지 않는
선 생태
거쳐 추
말했다.
원주시
연생태
환경의
번 생태
중한 논
도록 최
다.

관련부:

담당	팀장	지사장		월	공
2	한영익	7/11/11		일	탈